

경제생활의 통치

피터 밀러, 니콜라스 로즈

이 논문은 후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권력 행사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이런 방식은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서 발전되었으며 '정치적 합리성'과 '통치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정치권력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통치를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규제 메커니즘과, 또한 '원격 작용'을 통해서 개인 및 조직의 행위를 정치적 목적에 연결하는 간접 메커니즘의 각별한 중요성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정치적 목표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의미나 레토릭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존재의 양상을 기록과 계산에 종속시키는 '지식 테크놀로지'로서 언어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개인, 조직, 목표를 배열하는 느슨하고 유동적인 네트워크의 배치에 수반되는 협상과 설득의 복잡한 과정에 주목한다. 논문의 주장은 경제생활 규제의 여러 측면 중에 [첫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와 영국이 시도한 국가경제계획, [둘째] 1960년대 영국의 회계 관행 변화가 수행한 역할, [셋째] 생산하는 주체의 심리적 특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작업장의 내부 영역을 관리하는 테크닉들을 통해서 입증된다. 본 논문은 '통치성'이 지식 테크놀로지, 실천적 활동, 전문지식과 연결된 사회적 권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전문지식을 통해 형성되고 표준화되는 주체들의 자기 규제 능력이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의 통치에서 주된 자원이라고 주장한다.

후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은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존재의 수많은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오늘날 정치권력은 수많은 행위자와 테크닉을 통해 행사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국가 공식 기관의 공무원과 관료에 단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미셸 푸코의 '통치' 개념이 개인들의 생활과 결사를 관리하려 했던 모든 사회적 권위자들의 유동하는 야망과 관심을 분석하는데 잠재적으로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보며, 우리가 개인과 조직의 행동 및 판단을 정치적 목표에 연결했던 다양한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¹⁾ 우리는 근대 '통치'에 대

(*) 이 글은 1988년 12월 헬싱키 대학에서 있었던 언어와 정치 콜로키움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핀란드어로 1989년 *폴리타카지*에 게재되었다. 영어로는 S. Hanninen and K. Palonen(eds), *Texts, Contexts, Concepts*, Helsinki: Finis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89년에 실린 논문을 대폭 수정한 판본이다. 그레햄 톰슨Grahame Thompson과 이 저널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하며, 이들의 비판적 논평은 우리가 논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 예를 들어, Foucault, M. (1979) 'On governmentality', *I&C*, 6: 5-22.

한 분석이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행위를 사회-정치적 목표에 정렬하는 ‘간접’ 메커니즘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분석할 때 과학기술사회학의 몇몇 최근 작업에 의존하며, 부르노 라투어의 ‘원격 작용’ 개념을 빌려와 채택한다.²⁾ 우리는 그런 원격 작용 메커니즘들이 결정적인 측면에서 ‘전문 지식’, 즉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전문적 진리와 희소한 권력을 획득하려는 특수한 행위자들과 이해 방식들에 부여된 사회적 권위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 전문지식의 권력을 통해 형성되고 표준화되는 주체들의 자기 규제 능력이 근대 통치 형태들의 핵심 자원이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적 통치 방식을 위한 몇몇 결정적 조건들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통치성’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려는 일반적 논의로 시작할 것이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메커니즘들과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하며, 이는 경제생활 ‘통치’의 다양한 측면들을 참작하여 논의된다. 우리는 ‘경제’의 ‘통치’를 먼저 경제계획의 중앙 집권적 체계를 통해서 다음으로 경제 행위자들의 계산 절차를 변형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는 기업 내부 영역의 ‘통치’에 눈을 돌려 이를 경영의 변화 테크닉들과 관련해서 검토한다. 우리는 경영이 생산의 기술적 성격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주체들의 심리적 성격에 관한 전문지식에도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하나 주체의 자기 규제 능력들이 자율성과 자기-실현의 관념이란 측면에서 이해되고 규제되는 한에서 그런 능력들이 경제생활의 통치를 위한 핵심 자원이자 동맹자가 되는 테크닉들을 살펴본다. 우리는 이를 오늘날의 ‘통치성’ 변형들에 대한 일부 발언들과 연결시킨다.

첫째, 통치 개념을 살펴보자. 미셸 푸코는 자신이 ‘통치성’이라 명명한 특정한 **심성**이 정치적 사유와 행동의 모든 근대적 형태들에 공통된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성은 ‘이런 매우 특수하지만 복잡한 권력 형태를 행사하게 하는 제도들, 절차들, 분석들, 성찰들, 계산들, 전략들로 구성된 집합’이었다.³⁾ 그리고 푸코는 18세기 이래 인구가 **중요한** 통치 영역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권위자들은 인구에 본질적인 과정들, 즉 인구의 부, 건강, 수명, 전쟁을 수행하고 노동하는 능력 등을 조절하는 법칙들의 규제를 자임했다. 따라서 푸코에 따르면 우리 같은 사회들은 다양한 권위자들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만 하는 일련의 문제를 **사유하는** 특수한 방식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사회는 정치적 선협은 그런 권위자들의 과업을 [인구 전체와 [개인] 개별의 힘에 대한 계산된 감독, 관리, 극대화의 관점에서 여겨지게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협 내에서 작동한다.

정치적 지배의 행사를 조사하는 이런 방식은 수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정치권력을 국가의 행동으로 환원하지 않으며, 국가를 상대적으로 일관된 계산을 하는 일개 정치적 주체로 간주한다. 다양한 통제 기구를 수단으로 사회를 장악하는 국가의 관점에서 지배를 파악하는 대신에, 통치 개념은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할 때 특정 국가 영토 안에서 개인의 삶과 조건을 이질적인 방식으로 규제하려 했던 다양한 세력과 집단에 주목한다. ‘국가’를 통치로 대체한다기보다는, 국가를 통치가 취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통치를 조성하는 계산과 개입의 영역을 독립하지 못하는 형태로 간주한다.

통치 개념은 우리를 이러한 열망들과 시도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끈다. 이 경로는 다소 기묘한 방법을 통해 친숙하고 잘 다져진 곳, 즉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에 대한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분석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관심사들의 분명한 친숙성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사실 유럽에서 최초의 통치성 형태들은 ‘경찰’ 과학의 이름으로 실천되었고 ‘경찰’과 ‘정책’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통치 개념이 제기하는 정책 분석은 바로 ‘정책’이라 불리는 관심사들의 영역 자체의 존재를 설명 대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양상들을 사유할 수 있고, 계산 할 수 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수행하는 근본적 역할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복잡한 지식 노동은 새로운 형태의 사유를 발명할 뿐만 아니라 기록, 계산, 평가의 새로운

2) Latour, B. (1987b) *Science in Action*,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Law, J. (ed.) (1986) *Power, Action and Belief*,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를 참조하라.

3) Foucault, 1979: 20.

절차들의 창안에도 관계한다. 통치 개념은 그런 개입들을 실행할 때 상이한 권위자들이 어떤 윤리적 조건 아래에서 지식 노동을 정당화하고, 실현가능하고, 심지어 필연적이라 여기게 되는지를 우리가 고려해야만 한다고 본다. 통치 개념은 정책을 유발하고 작동시키는 관심사들이 자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업, 범죄, 질병, 빈곤이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식될 수 있는 '문제'로 출현한 것 자체가 설명 대상이다. 통치 개념은 상이한 집단들이 그런 존재의 양상들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화했으며, 그리고 정책들을 개발했고 실행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집단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적' 권위자들뿐만 아니라 지적 토대와 영적인 토대 등을 가진 권위자들이다. 통치 개념은 정책들의 발전이나 진화에서 평탄한 경로란 있을 수 없으며, 지속적인 발명들은 보통 갑작스럽고 우연한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적 혹은 경제적 존재의 겉보기에는 주변적이거나 모호한 장애들과 관련해서 일어났다고 제안한다. 그런 장애들은 특수한 이유 때문에 짧은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해 진다.

그러므로 통치 개념은 영역들에 대한 개입을 실행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권력과 지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통치 개념은 '정책' 분석이 상이한 행정 기관들, 그것들의 이해관계, 재원조달, 행정 조직 따위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이질적인 조건들의 배치가 정책의 대상들을 문제화하고 행정에 종속시킬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런 차원들이 통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연구될 수 있고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미셸 푸코의 작업들이 제시하는 접근은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는 두 가지 추가적 특징이 있다. 정책 연구는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케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는 단순화, 착오, 오판, 전략적 실수를 해석하는데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⁴⁾ 반면에 우리는 이런 유형의 평가, 이런 저런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혹은 왜 그런지에 관한 판단, 추정된 결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⁵⁾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유 방식 자체가 '통치성'의 특성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즉, 항상 정책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어느 정도 체계화된 시도들에 포위되어 있으며 개선된 수단을 통해서 동일한 목표의 달성을 공언하거나 완전히 관이한 목표를 주장하는 여타 정책들과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평가는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에 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평가의 원칙 자체, 즉 권위자와 관리자가 판단하고, 그로부터 그들이 결론을 끌어내고, 그들이 수정을 제안하고, '실패'가 새로운 통치 프로그램들의 선전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정치적 사유 형태들의 핵심 요소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의 '평가'는, 다양한 형태들에서, 우리가 통치성의 **프로그램적** 특성이라 부르는 것에 내재적이다. 단순히 사람들이 현실을 개조하는 어느 정도 명시적인 프로그램들 — 이런저런 문제를 다루는 도식을 제공하는 정부의 보고서, 백서, 녹서, 그리고 기업, 노동조합, 금융업자, 정당, 자선단체, 학계의 보고서 — 의 급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성이 프로그램적인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성이 한 영역 혹은 한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영원한 낙관론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현실을 어떤 식으로라도 프로그램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성은 프로그램적인 것이다.⁶⁾ 그러므로 한 가지 혹은 일련의 정책 '실패'는 더 효과적인, 즉 경제성장, 생산성, 낮은 물가 상승, 완전고용 등을 가져오는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거나 제안하는 시도들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실패의 확인이 통치

4) Williams, K. et al. (1986) 'Accounting for failure in the nationalised enterprises: coal, steel and cars since 1970', *Economy and Society*, 15: 167-219.

5) Thompson, G. (1987) 'The American industrial policy debate: any lessons for the U.K.?', *Economy and Society*, 16: 1-74을 참조하라.

6) Gordon, C. (1987) 'The Soul of the Citizen: Max Weber and Michel Foucault on Rationality and Government', in S. Lash and S. Whimster, *Max Weber, Rationality and Modernity*, London: Allen & Unwin;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London: Duckworth; Miller, P. and O'Leary, T. (1989b) 'Accounting expertise and the entrepreneurial society: new rationalities of calculation',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Accounting and the Humanities, University of Iowa, September 1989; Rose, N. and Miller, P. (1989) 'Rethinking the state: governing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life', Working Paper (available from the authors on request).

성의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통치성 분석 자체가 사회의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도구는 아니다. [분석 자체가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통치 의지'에 대한 분석이 그런 의지에 열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통치성의 담론적 성격

통치성은 담론적 성격을 가지므로, 우리는 통치 영역에 존재하는 개념화, 설명, 계산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언어와 정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둘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동관계 혹은 반영관계가 아니라, 또한 이데올로기적 신비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구성적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⁷⁾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경제 영역과 그 구성 요소들의 담론적 구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했다. 그런 연구들은 특정한 경제 영역을 인식 가능하게 했던 개념적 조건들을 입증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 영역은 합리적 지식과 계산이 가능하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규제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고유한 법칙과 과정을 지닌 다양한 경제적 실체들로 구성된다.⁸⁾ 짐 톰린슨이 경제 정책 결정의 이른바 케인즈주의 혁명과 관련해서 주장한 것처럼, 경제 정책의 대상들이 담론적으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런 형성은 불변적인 관심사의 인정, 혹은 분과적 이해관계의 표현이나 새로운 경제 이론의 단순한 현실화로 환원될 수 없는 일련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조건들에 의존한다.⁹⁾ 경제활동의 정치적 관리를 위한 케인즈주의 정책들은 자신의 힘을 기존의 문제 영역과 관련해서 획득했는데, 일련의 상호 연결된 행위자들, 이해관계들, 계산들, 이론들, 표상들의 존재에 의존했다. 전후시기 '완전고용'에 대한 관심은 케인즈주의 경제이론, 기술관료, 총력전을 포함한 일련의 이질적 조건들에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1931년 금본위제의 강제적 출범, 정부 지출의 증가, 전후시기 전시계획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같이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가능해졌다.¹⁰⁾

우리의 접근은 이와 많이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관심사들을 다소 상이한 프레임에 위치 짓고자 한다. 한편으로, 우리가 보기에, 정책이 보다 넓은 담론적 영역 안에서 파악되어야만 하는데, 이런 영역 안에서 통치의 적합한 목적과 수단에 대한 개념들이 접합된다. 이는 미셸 푸코가 '정치적 합리성들'이라 부른 것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유 테크놀로지로서 '담론'에 대한 관점을 주장하는데, 이는 한 영역을 인식 할 수 있고, 계산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담론으로 만드는 쓰고, 듣고, 수치화고, 계산하는 특수한 기술적 방법들을 주목하게 한다. 어떤 대상을 통치 가능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순수한 사변적인 활동 이상을 뜻한다. 그것은 표기 절차의 발명과 통치성을 수집하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계산과 판단이 내려지는 중심지로 전송하는 것 등을 요구한다. '통치성'의 다양한 영역들이 형성되는 그런 기입 절차들을 통해서, 경제, 기업, 사회 영역, 가족과 같은 '대상들'은 특수한 개념적 형태로 가공되고 개입되고 규제받게 된다.

정치적 주장은 분명 이론적 담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통치가 접합되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담론 매트릭스, 통치의 대상들과 목표들이 파악되는 특정 언어, 분석과 처방의 문법, 프로그램의 어휘, 통치의 정당성이 확립되는 용어를 조건으로 정치적 합리성이 설명되고 구분될 수 있다. 그런

7) 예를 들어, Shapiro, M. (ed.) (1984) *Language and Politics*, Oxford: Blackwell; Connelly, W. (1987) 'Appearance and Reality in Politics', in M. T. Gibbons (ed.), *Interpreting Politics*, Oxford: Basil Blackwell; Taylor, C. (1987) 'Language and Human Nature', in M. T. Gibbons (ed.), *Interpreting Politics*, Oxford: Basil Blackwell.

8) Burchell, S., Clubb, C. and Hopwood, A.G. (1985) 'Accounting in Its Social Context: Towards a History of Value Added in the United Kingdom',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381-413; Tribe, K. (1978) *Land, Labour and Economic Discours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Tomlinson, J. (1981a) 'Why was there never a "Keynesian Revolution" in economic policy', *Economy and Society*, 10: 73-87; Tomlinson, J. (1981b) *Problems of British Economic Policy 1870-1945*, London: Methuen.

9) Tomlinson, 1981a.

10) Tomlinson, J. (1983) 'Where do economic policy objectives come from? The case of full employment', *Economy and Society*, 12: 48-65.

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복지주의나 신자유주의 같은 통치 합리성들 — 일단의 철학적 주의주장들,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현실에 대한 관념들, 권력에 대한 이론들, 정책에 대한 개념들, 정의의 판본들 — 이 정교해지며, 이는 사회적 삶을 조직하고 동원하는데 적합한 토대들을 규정하려고 한다.

모든 통치는 특수한 '재현' 양식에 의존한다. 이는 문제가 되는 영역을 묘사하는 언어의 정교화이며, 재현되는 현실의 본질을 잡아내는 동시에 문자 그대로 그것을 정치적 심의, 주장,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표상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는 통치에서 언어가 중요해지는 또 다른 방식에 관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통치 프로그램**들은 언어 안에서 정교해지고, 언어를 통해서 [한편으로] — 국가, 덕성,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 정치적 담론의 폭넓게 규정된 윤리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호소와,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정치적·개인적 존재의 특정 문제들을 처리하려는 계획들, 도식들, 목표들 간에 조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영국의 경우, 국가 효율성이라는 표현은 통치의 고유한 역할과 통치가 다룰 수 있고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논쟁을 조직하고, 인구의 경제생활 및 건강의 특정 측면들을 관리하는데 착수했던 일련의 상이한 프로그램들을 접합하는 데에도 기여했다.¹¹⁾ 여기서 언어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간의 **번역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며, 이는 정치적 합리성들과 규제적 열망들 사이에 일종의 동일성 혹은 상호성을 확립한다.

'통치성'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의 정치 담론은 이론적 주장에 특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주장이 동반하는 진리 주장을 개방한다. 인구, 국민경제, 기업, 가족, 아동,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는 오직 통치 받는 영역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현하는 담론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가능해 지는데, 통치 받는 영역 자체가 범위를, 즉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성 요소들을 서로 연결하는 특징을 지닌다.¹²⁾ 사람들이 경제 같은 영역을 관리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경제의 여러 절차들과 관계들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말해질 수 있는 고유한 특징들, 법칙들, 과정들을 지닌 영역이자 지식이 획득되는 영역으로서 국민경제라는 표현의 탄생은, 그 영역이 '경제를 통치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평가하고 증대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의 한 요소가 되게 했다. 말하자면, '통치'란 항상 지식에 의존하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통치 대상에 관한 실증적 지식, 통치 대상을 합리화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통치 대상의 문제를 식별하는 방법, 해결책을 고안하는 방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론은 현존하는 권력관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존재의 새로운 영역을 실천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특정 대상과 문제를 지배자의 정당한 의무와 권력에 속하게 하고 그런 의무와 권력을 프로그램에 따라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언어를 통해서 통치 영역들이 구성되고, 사유될 수 있고 관리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통치에서 언어의 역할에 주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권력의 분석이 개념사의 하위 분과가 되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관심이 의미의 문제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묘사했던 언어의 특징은 이보다 훨씬 능동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아마도 **지식 테크놀로지**라는 용어에서 가장 잘 포착될 것이다. 말하자면, 언어는 현실을 특정 종류의 행동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언어는 단순히 [세계를] 관

11) Miler and O'Leary, 1987; Rose, 1985. Miller, P. and O'Leary, T. (1987) 'Accounting and the Construction of the Governable Person',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35-65; Rose, N. (1985) *The Psychological Complex: Psychology, Politics and Society in England 1869-1939*,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2) Burchell et al., 1985; Hopwood, A. G. (1984) 'Accounting and the Pursuit of Efficiency', in A. G. Hopwood and C. Tomliins, *Issues in Public Sector Accounting*, Oxford: Philip Allan; Hopwood, A. G. (1985) 'Accounting and the domain of the public: some observations on current developments', *The Price Waterhouse Public Lecture on Accounting*, University of Leeds. Reprinted in A. G. Hopwood (1988), *Accounting from the Outside: The Collected Papers of Anthony G. Hopwood*, New York and London: Garland; Hopwood, A. G. (1986) 'Management accounting and organizational action: an introduction', in M. Bromwich and A. G. Hopwood (eds), *Research and Current Issues in Management Accounting*, London: Pitman; Miller, P. (1989) 'Managing Economic Growth Through Knowledge: The Promotion of Discounted Cash Flow Techniques', Working Paper; Miller, P. and O'Leary, T. (1989a) 'Hierarchies and American Ideals, 1900-1940',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0-65; Rose, N. (1990)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London: Routledge.

조하는' 것 이상인데, 특정 사물을 세상에 존재하는 대로 묘사한다는 식으로 세계를 서술하는 것은 일련의 도구와 아주 일상적인 테크닉들을 통하여 현실을 통치의 계산에 기입하는 것과 관련된다.¹³⁾ 통치가 적용되는 사건들과 현상들은 정보, 즉 문서 보고서, 도식, 그림, 숫자, 도표, 그래프, 통계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이런 정보는 안정적이고, 이동 가능하고, 결합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특수한 형식을 취해야만 한다. 이런 형식은 그 영역의 고유한 성질들 — 재화, 투자, 연령, 건강, 범죄의 유형들 — 을 그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관리자의 사무실, 작전실, 케이스 발표회 등)에서 문자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18세기 국가의 과학으로서 통계학의 발명에서부터 통화 공급을 측정하여 국가의 경제생활을 평가하거나 보건서비스 활동들을 현금 가치로 환산해 보건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려는 오늘날의 시도에 이르기까지, 통치 프로그램들은 현실을 기입하는 장치들의 발명에 의존해왔으며, 그런 장치들은 현실에 대한 논쟁과 처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형태를 띤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는 중립적인 기록 기능의 산물이 아니다. 정보 자체는 문제가 되는 영역을 평가하고, 계산하고, 그에 개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관여하는 한 방식, 즉 현실을 기입하는 테크닉들(출생률, 회계계정, 납세 신고서, 케이스 기록)을 창안하는 한 방식이다.

통치 테크놀로지

물론 '통치'는 표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입의 문제이다. 지난 두 세기동안 '서양'에서 통치성의 구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성은 재현 절차와 개입 절차의 복잡한 상호연결을 특징으로 한다.¹⁴⁾ 우리는 통치를 도구화하고 통치를 작동시켰던 이러한 시도들이 또한 일종의 '테크놀로지' 형태를 띤다고 본다.¹⁵⁾ 만약 정치적 합리성이 현실을 사유의 영역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런 '통치 테크놀로지들'은 사유를 현실의 영역으로 번역하려 한다. 또한 통치 테크놀로지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구상하고 계획한 '사람들과 사물들로 이뤄진 세계 안에 있는' 실체들에 개입하기 위한 영역들과 장치들을 확립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배 활동에 대한 특수한 분석적 접근을 제안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권위자들이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행위, 사유, 결정, 열망을 형성하고, 표준화하고, 제도화하고자 했던 현실의 메커니즘들에 많이 주목한다. 우리가 보기에, 근대의 지배 형태들을 이해하는 것은 거대한 정치적 계획들, 경제적 목표들, 또한 '국가 통제', 국유화, 자유 시장 등의 일반적인 슬로건들을 단순히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이른바 하찮고 평범한 메커니즘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표기, 계량, 계산의 테크닉들, 검토와 평가 절차들, 설문조사 같은 방법과 테이블 같은 표현 형식들의 발명, 훈련 체계와 습관 형성의 표준화, 전문가의 전문분야와 어휘의 도입, 건물 설계와 건축 형식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목록은 이질적인데다가 무엇보다도 무제한적이다.

정치철학과 정치사회학의 고전적 용어들 — 국가 대 사회, 공적 대 사적, 공동체 대 시장 등 — 은 여기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그런 언어가 정치 합리성들과 프로그램들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것들에 윤리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또 다양한 종류의 통치 열망의 정당성을 구별 짓는 한에서, 분명 우리가 그런 언어를 조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술적 수준에서, 통치의 작동은 그런 경계들에 의해 구별되지 않는 규제와 설득의 온갖 간접적 관계를, 의도적이든 아니던 간에,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지식에 주어졌던 능력들 — 전문가들, 진리 주장들, 기술적 절차들

13) Rose, N. (1988) 'Calculable Minds and Manageable Individual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 179-200; Latour, B. (1987a) 'Visualization and cognition: thinking with eyes and hands', *Knowledge and Society: Studies in the Sociology of Culture, Past and Present*, 6: 1-40.

14) Hacking, I. (1983) *Representing and Intervening*,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참고하라.

15) Foucault, M. (1986)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P.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Harmondsworth: Penguin, pp.225-6을 참조하라.

의 복잡한 혼합물 — 은 단순하게 이런 정치의 원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 ‘민간’ 회사, 기업이 및 부모의 ‘사적’ 결심, ‘사적’ 자아의 자기 규제 능력들을 형성하고 표준화하는 광범위한 메커니즘들을 제공한다.¹⁶⁾ 하지만 정확히 말해 행동과 개입의 이런 간접적 수단들이 근대 ‘통치 심성들’에 핵심적이며, 또 근대 지배 형태들을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이다.¹⁷⁾ 그런 통치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분석은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치 프로그램이 관련되는 장소, 사람, 인구에다가 통치 프로그램을 개입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이 영향을 행사하게 하는 복잡한 연결과 상호의존에 주목한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정치 합리성과 그것이 접합하는 통치 프로그램은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도식들을 현실에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통제를 권력의 자리로부터 존재의 사소한 일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통치의 테크놀로지 차원에 주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주의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라는 이미지에 호소할 생각은 없다. 알다시피, 어떤 유럽 국가에서 초기 ‘경찰’의 형태는 사회적 신체의 모든 부분들에 정치적 권위자들이 침투해서, 읽어내어, 지도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몽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하지만, 미셸 푸코가 지적한 것처럼, 19세기 자유주의는 차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런 몽상을 포기하는 시점이었다. 대신에, 문제는 고유한 과정들과 힘들을 지닌 별개의 현실로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는 문제가 되었다. ‘사회’라는 개념이 출현하면서, ‘어떻게 통치가 가능한가, 즉 개입 없이도 통치 합리성에 따라 최선의 결과가 나오려면, 통치 행동에 어떤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로 문제가 변했다.¹⁸⁾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들에서 매우 중요한 지배의 ‘간접’ 메커니즘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간접 메커니즘들이 **원격 통치**를 가능하게 했거나 가능하도록 경주해온 것이다. 통치를 유도하는 그런 간접 메커니즘들을 개념화할 때, 우리는 부르노 라투어의 ‘원격 작용’ 개념을 우리 목적에 맞게 차용한다.¹⁹⁾ 라투어는 이 개념을 ‘어떻게 잘 모른 채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 장소,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답하면서 이 개념을 만들어 낸다. 18세기 프랑스 항해사들은 단순히 미지의 동태평양 지역을 건너가서 유럽의 메트로폴리탄에 기반을 두고 거주민을 식민화하고, 길들이고, 지배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멀리 떨어진 이런 장소들이 [메트로폴리스로] ‘ 옮겨졌다 ’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런 장소들이 지도, 그림, 별과 조수의 운동에 관한 독법이라는 형태로 ‘계산 중심지’로 옮겨졌다. 이동하는 기록들 *mobile traces* 은 왜곡, 변형, 변질 없이 오갈 정도로 충분히 안정적인데다가 결합 가능했기 때문에 축적될 수 있고 계산될 수 있었는데, 이는 선박을 왕복하게 했으며 ‘중심지’를 창출하여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과 과정들을 ‘지배’ 할 수 있게 했다. 라투어는 이런 과정이 하늘을 지배하는 문제든가, 땅을 지배하는 문제든가, 경제를 지배하는 문제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지배란 중심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의 지식 지배를 수반한다.

우리의 ‘원격 통치’ 개념은 이런 생각을 라투어의 작업과 미셸 깔롱의 작업에서 발전된 관련 접근과 결합한다.²⁰⁾

16) [여기서 ‘민간’과 ‘사적’은 모두 private의 번역어이다—역자]

17) MacIntyre, 1981; Miller, P. and O’Leary, T. (1989b) Accounting expertise and the entrepreneurial society: new rationalities of calculation,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Accounting and the Humanities, University of Iowa, September 1989; Rose, N. (1986) ‘Beyond the public/private division’, in P. Fitzpatrick and A. Hunt, *Critical Legal Studies*, Oxford: Blackwell; Rose, N. (1989a) ‘Social psychology as a science of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Cheiron-Europe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Goteborg, August 1989.

18) Foucault, 1986: 242.

19) Latour, B. (1987b) *Science in Action*,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Law, J. (ed.) (1986) *Power, Action and Belief*,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219.

20) Callon and Latour, 1981; Callon, 1986; Latour, 1986.

Callon, M. and Latour, B. (1981)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s help them to do so’, in A. Cicourel and K. Knorr-Cecina (eds) *Advance in Social Theory* (London); Callon, M.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 J.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atour, B. (1986) ‘The powers of association’ in J.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과학과 기술 혁신들의 확립과 일반화를 분석하는 맥락에서, 라뚜어와 깔롱은 강제로 직접 행위 행태를 주입하지 않고 행위자들(agents)과 행위능력들(agency)의 느슨한 집합을 기능 네트워크들로 섬세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 장소에서의 계산과 다른 장소에서의 행동을 연결 할수 있게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검토했다. 이는 설득이나 강요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정당성, 기타 다른 자원 때문에 한 행위자를 다른 행위자에 의존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제나 목적이 본래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서로 힘을 합치거나 공동 전선을 펼침으로써, 각자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거나,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설득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동맹을 포함한다. 이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과정만큼이나 깔롱과 라뚜어가 '이해공유(interessement)'라 부르는 것, 즉 설득, 계략, 계산, 레토릭을 통해 공유된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깔롱과 라뚜어가 '번역'이라 칭하는 것이 발생한다. 번역을 통해서 한 행위자나 세력은 특정한 방식의 사유와 행위를 다른 행위자에게 요구하거나 [반대로] 의존할 수 있고 그 결과 서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합하는데, 이는 서로가 그들의 문제를 공통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운명이 모종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간, 시간, 공식적 경계에 따라 구분된 사람들, 조직들, 단위들, 지역들이 느슨하고 근접한데다가 항상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동맹을 위해 정렬될 수 있다.

다시 언어가 이런 느슨하게 정렬된 네트워크들을 설립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넣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부분적으로 공유된 어휘들, 이론들, 설명들을 채택함으로써, 느슨하고 유연한 연합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행위자들 — 국부, 압력 단체, 교수, 경영자, 교사, 고용주, 부모 — 사이에 확립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행위자 각자는 크든 작든 구조상 멀리 떨어져 있고 공식적으로 독립적으로 남게 된다. 이런 다양한 세력 각자가 다른 세력들의 목표와 가치를 자신의 용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한, 즉 다른 세력들의 주장이 자신의 야망과 행동에 일치하고 규범들을 제공해야만 하나의 통치 네트워크로 등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전문지식의 언어가 핵심 역할을 한다. 전문지식의 규범들과 가치들은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전문지식이 중립적인 진리를 표방하고 희망하는 결과의 성취하리라는 약속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지식은 한편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특수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등의 야망에 호소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사무실, 항공기, 병원, 집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를 느끼게 된 사람들의 흥미도 끌게 된다.

물론 그런 네트워크들은 결정과 행위를 계산된 방식으로 형성하는 합리적으로 계획된 테크놀로지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²¹⁾ '통치'는 지배 메커니즘을 발명하고, 촉진하고, 설치하고, 작동시키는 무수하게 계산된 시도들에 구체화되는데, 지배 메커니즘은 프로그램된 열망들에 따라서 경영자의 투자 결정이나 부모의 아동 양육 결정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좀처럼 그대로 이식되지 않을뿐더러 대개는 추구한 바를 달성한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통치'는 영원히 낙관적인 반면에, '통치'는 통상 운영에 실패한다. 대다수 프로그램들은 이질적이고 경합적인데다가, 한 프로그램의 해결책은 다른 프로그램에 문제를 일으킨다. 항상 '현실'은 프로그램에 특성을 부여하는 이론들 및 프로그램을 떠받치는 야망들을 벗어난다. 현실은 너무나 제멋대로라서 어떠한 완벽한 지식으로도 포착되지 않는다. 테크놀로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단지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재원부족, 직업적 경쟁,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기술적 조건 — 신뢰도 있는 통계,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 명확한 명령 계통, 적합하게 설계된 건물, 잘 입안된 규제 등 — 의 충족 실패로 인해 제한 받는다.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다른 테크놀로지와 교차 할 때 계획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하나의 테크닉을 작동시킬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발명된 테크닉이 다른 목적에 맞는 통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매우 상이한 열망들에서 유래한 테크닉과 조건의 계획되지 않은 결합이 명시적인 근거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것을 작동시킬 수 있다. '통치 의지'는 그것의 성공이란 관점 보다는 그것의 작동에서 비롯된 장애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

21) Thompson, G. (1982) 'The firm as a "dispersed" social agency', *Economy and Society*, 11: 233-50.

다.

국민 경제의 통치

우리는 이 논문의 나머지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주목했던 메커니즘들 가운데 일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중 어느 것도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대하여 완전히 포괄적인 역사적 설명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정책들이나 그 이면에 있는 정치에 대한 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측면에서의 '통치성'인데, 즉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가변적인 시도들을 구성했던 심성들, 경제활동을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가변적인 어휘들, 그런 시도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접해서 이론과 기입을 형성하는 지식 테크놀로지들의 역할,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정착시키게 따르는 어려움과 연관해서 발명되었던 다양한 규제 테크놀로지들, 전문지식이 수행했던 핵심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에 의해 형성된 배치로부터, 특히나 전문지식의 안도에 따른 '민간' 사회 행위자들의 자아 규제 활동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국가의 경제생활을 통치할 가능성이 자유민주주의 이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출현했다.

우리는 경제 계획의 중앙 집권 체계를 통해 경제를 '통치'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겠다. 심지어 그런 '중앙 집권화된' 메커니즘들을 고려할 때조차, 경제생활의 통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중앙 지점, 즉 국가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통치 개념은 그로부터 특수한 합리성이 형성되는 다양한 요소,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테크닉에 주목한다. 합리성과 테크놀로지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것들 간의 중계와 연결은 서로의 정교화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특수한 정치적 어휘의 출현은 그런 가능성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기입, 기록, 계산의 수많은 메커니즘의 이식을 요구한다. 만약 정치적 합리성들이 작동하려면, 심지어 통치 범위의 한정을 공언하고 선택의 자율과 자유를 장려하는 합리성들조차, 테크놀로지들의 복잡한 배열의 작동을 필요로 한다.

전후 프랑스에서 국민 계정과 국가 계획의 발달을 검토해보면, 우리가 특정 정치적 어휘 및 정보를 생산하고, 도표로 만들고, 계산하는 일련의 장치들 간의 위와 같은 복잡한 중계와 연결을 밝혀낼 수 있다.²²⁾ 국민 계정은 분산되어 있는 개별 기업과 생산자를 국가의 거시 수준으로 단순히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계정은 새로운 지식 영역을 구축하는 문제이다. 이는 '경제적인 것'을 경제로 생각하게 하는 일련의 새로운 개념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역을 기입하고, 일람표로 작성하고, 계산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통계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 계정은 통치와 사회 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계산 및 관리에서 독특한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 경제를 가능한 지식과 계산, 또 가능한 개입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무런 문제없이 선형적 전개되지 않는다. 경제를 인식하게 하는 언어가 자율적인 이론적 논쟁의 영역으로부터 수월히 출현하지 않는다. 또한 언어란 일단 만들어진 다음 그것을 '적용'하는 단순한 문제도 아니다.

통치 원칙들의 결정적 변화는 국민경제를 인식되고, 기록되고, 계산되고, 운영되는 대상으로 접합하는 복잡한 과정에 달려있다. 단순히 지배자는 자신의 신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부를 그들로부터 추출한다는 개념은 [이제] 지배자 혹은, 국가가 그런 부를 갱신하고 심지어 개선해야만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한다. 이런 변화는 국민 경제의 자원들에 관한 계산을 통치 목표들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그런 계산은 상이한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을 하나의 표로 통합하고, 이들 각 요소의 비율과 변동을 계산하고, 또한 장려되는 활동을 표시하고, 재정 체계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공공지

22) Fourquet, F. (1980) *Les comptes de la puissance*, Paris: Encre; Miller, P. (1986a) 'Accounting for Progress — National Accounting and Planning in Franc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83-104.

출을 정확하게 할당한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 계정의 발전은 장 모네(Jean Monnet)에 의해 전개된 국가 계획 프로젝트와 분리할 수 없다. 국민 계정은 전후 경제의 복구 노력과 관련되는데, 전후 경제의 복구 자체가 프랑스 사회의 '후진적' 요소들을 제거하려던 정치적 현대화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였다. 프랑스 사회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척시켰던 정치적 어휘는 '성장', '진보', '연대'라는 단어들을 핵심적 용어로 삼았다. 이런 정치적 언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층위의 다양한 이슈들이 사유되고 개입 되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준거로 삼아 국민 계정의 범주들이 접합되었다.

생산의 범주는 정치적 어휘를 일련의 기록과 계산 테크닉으로 번역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다. 생산의 범주를 통해서 생산적이라 간주된 활동들과 비생산적이라 간주된 활동들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무엇이 생산인가? 누가 생산적인가? 두 가지 질문 모두 시민들과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을 통해서 부가 창출되는 데다가 통치가 자신의 자원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전통의 특정 요소들을 우리가 17세기 후반 페티(Petty, King, 데이번트(Davenant)의 저술에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반면, 전후 시기 초기에 일련의 통계학적이고 경제 계산적인 테크닉이 그런 목표에 제공되었는데, 이는 그런 목표를 사유하게 하는 언어, 실행하게 하는 제도적 기구, 운영하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국민 계정의 개념적 골격을 정련하고 국민 계정의 통계적 기초를 확립하는 과정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숫자의 쇄도'를 제공했던 통계 인프라의 설립에서 비시 정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전쟁 이후 이런 발전들이 '희망을 프로그래밍'하는데, 즉 국가 계획의 기초를 제공했다. 국가 계획은 프랑스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성장 및 현대화라는 언어를 전개하려는 시도였다.

계획, 현대화, 성장이라는 요건을 달성시켰던 일련의 국민 계정의 개발이 주어진 정치적 어휘를 실행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활동들과 과정들을 특정한 방법으로 표현하려 할 때, 테크놀로지는 갖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한다. 국민 계정 체계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투입산출표다. 1952년에서 1960년 사이, 프랑스는 산업을 상품(branches)(기업들을 개별 상품을 생산하는 부서별로 분류한 집합)별이 아니라 부문(sectors)(기업들을 주요 활동에 따라 규정한 집단, 한 부문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별로 별개의 표를 만들려고 했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실제 장소들에 기초했기 때문에, 부문별로 작성된 표는 계정 체계에 즉각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었음에도, 또한 부문별로 작성된 기업 계정을 상품별로 작성된 계정으로 번역하려 했던 개념적 묘기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작성된 표를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통계적으로 볼 때, 부문별로 작성된 표라는 개념이 바람직했다. 하지만 계획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상품별로 작성된 표가 요구되었다.²³⁾

따라서 일치 혹은 번역가능성의 정도가 계산 테크놀로지와 — 도구화를 위해 그런 테크놀로지를 고안하는 — 프로그램 간에 필수적이다. 국가의 경제 활동을 총합하는 상이한 방법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총합의 '제도적' 단위(이 경우 경제 행위자들은 사회적-법률적 성격에 따라, 즉 개인, 민간 기업으로 집단화된다)나 '기능적' 단위(이 경우 주요 활동, 즉 생산, 소비, 저축에 기초한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 체계에서 전자의 채택은 그것이 경제 전망 체계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었다. 프랑스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국가의 경제 활동이 물리적이고 제도적으로 구분되는 행위자들을 통해서 발생한다면, 다양한 세력들로 이루어진 추상적 단위(즉, 기능적 단위)가 아니라 이런 실제 경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국가 계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통치 프로그램은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질서에 대한 이상화된 도식이다. 통치 프로그램은 국가 계획이나 국민 계정과 같은 테크닉을 통해 단순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통치 목표가 정련되는 영역(자체)를 만들어 내며, 그런 영역에서 통치 목표를 실행하는 계획이 창안된다. 하지만 활동들과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장애를 일으키고 의도한 바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때로는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인식시키는 합리성과 불완전하게

23) Fourquet, 1980; Miller, 1986a.

조용한다. 전후 프랑스의 경제 계획 사례는 한 영역을 통치 가능하게 만드는 지식 노동의 '테크놀로지적' 측면의 중요성 — 특히 기업 테크놀로지들 핵심 역할 — 뿐만 아니라 통치란 프로그래머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항상 '현실'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을 강조하며, 프로그래머의 세계는 끝없는 실험, 발명, 실패, 비판, 조정의 영역인 것이다.

통치의 이론적-실천적 매트릭스에서, 정치 프로그래머들은 불가피하지만 운영 장치들 및 비판적 견해들과 제휴한다. 특정 정치 프로그래머들이 통치를 위한 특정 목표들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제안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겨운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운영은 프로그램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범주들과 테크닉들을 만들어 내고, 프로그램의 목표들을 개인, 기업, 조직의 삶에 실행하는 테크놀로지들을 배열하고 때로는 발명해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의 결과와 성패의 조건들을 토론하고 숙고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서 달성된다.

경제의 원격 통치

우리는 현대 '통치성'이 '원격 작용',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상이하고 다양한 개인들과 행위자들(agency)의 공식적으로 상이하거나 '자율적인' 성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행위를 조성하고자 하는 메커니즘들에 결정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통치 메커니즘들을 발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휘들과 전문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어휘들과 전문지식이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정착시키려는 계산된 시도들에 연관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존재가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행위자의 자기 규제를 작동시킨다는 점을 함의한다. 경제의 통치에서 중요한 한 가지 메커니즘이 경제 행위자들의 계산 절차를 변형함으로써 작동했다. 우리는 이것을 1960대 영국의 경제 규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

약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영국의 정치는, 통상적으로, 개입주의 국가의 정점으로 간주된다. 보수당에서 노동당까지 정치 주장은 경제를 규제하는 '불개입' 테크닉의 실패를 진단했다. [불개입 테크닉에 따라 경제를 규제할 때 정부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동시에 재무부는 다양한 경제 행위자가 자신의 계산과 결정을 내릴 때 따르는 전반적인 프레임에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했다. 이런 실패의 표명 자체는 우리가 앞 절에서 다루었던 정치적 어휘와 기업 테크닉에 일부 의존했다. 우리가 '정치적 합리성'이라 이름 붙였던 층위에서, '성장'은 국가의 경제적 활력에 대한 핵심 지표로 등장했고 성장에 따라 경제 정책의 성패가 판단되었다.²⁴⁾ 성장이 무엇이고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수많은 차이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경영자조직인] 영국산업연합(FBI)과 [이와 유사한 기관들에 따르면, 국제 경제 질서에서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반면에, 노동자들에 따르면, 성장은 빈곤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동력의 엔진이었다. 하지만 이런 차이들은 공통의 지반에서 작동했다. 정치인들, 사업가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성장'이 국가적 목표이자 성장을 달성하려면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평에서 활동했다.

성장 담론이 이런 특수한 형태로 출현하고, 영국에서 낮은 '성장률' 담론이 등장한데는 성장을 애매한 속성이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취급했던 매우 특수한 지적 전제조건이 존재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계정체계는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계산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단위로 생각하게 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같은 국제기관은 정치적 주장에 활용될 수 있는 산업국들의 '성장률' 비교표를 작성했다. 단지 그런 이유로만 국제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영국의 성장률이 낮다는 게 밝혀졌다. 단지 그런 이유로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 주장이 성장을 실현하는 특정

24) Leruez, J. (1975) *Economic Planning and Politics in Britain*, tr. M. Harrison, London: Martin Robertson를 참조하라.

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특정 테크놀로지로 번역될 수 있었다.

1960년대의 정책 변화는 종종 경제생활의 계획과 규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강화로 이해된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변화했다면 '성장'이 일어났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통치 개념을 적용해보면, 개입주의 국가와 비개입주의 국가의 대립은 무리가 따른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다양한 메커니즘들에 주목하려면, 우리가 [위에 제시된] 관계들을 다르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정치적 합리성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구를 구성하는 단위들과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치적 야망, 전문적 지식, 개별 기업의 경제적 열망으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결에 개입하려고 했다.

1960년대 영국의 정치적 어휘에서, 경제 성장의 목표는 수많은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되었다. 이에 핵심적인 것은 산업 산출의 증가, 기업의 효율성 개선,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이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할 경로 기대되었던 수많은 계획이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계획**, 국가경제개발위원회_{NEDC}, 산업개편공사, 지역고용보험, 1965년 독점 및 기업결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의 법률적 규제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개입주의의 정치적 열망을 가리킨다 해도, 동시에 이런 계획이 '민간'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의 미시 층위에 직접 개입할 때는 제약 받았다. 특히 이것은 경제 성장 문제, 즉 투자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입일 때 그러했다. 여기에서, 경제 성장의 어휘를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유와 행동 간의 새로운 관계가 요구되었다. 여기에서, 개별 투자 결정을 통해 실제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 결정을 개념화하고 기업 내부 투자 결정을 계산하는 방식이 요구되었다. 비록 정치인들과 그들의 경제 자문관들이 민간이든 국영이든 개별 회사의 결정을 직접 통제할 순 없었지만, 경영자들에게 현금흐름할인분석_{DCF}테크닉의 이점을 설득하는 것이 경제 성장 달성의 전망을 지속시켰다.

DCF 테크닉은 1960대에 이전에 개발되었지만, 이 시기 동안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고 재무부가 이를 국유산업에 강력히 권고했다.²⁵⁾ 어떤 형태의 개입과 계획에 추진하는 정부정책의 맥락에서, DCF 테크닉의 계산법을 통한 개별 투자 결정에 대한 규제는 경제를 지도하는 중심과 지시 및 유인에 따라 행동하는 개별 기업 사이의 거리를 줄이게 했다. DCF 테크닉은 개별 기업들과 기업의 개별 경영자들이 투자 기회를 고려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전망했다. 경험에 의한 통찰과 법칙은 경영자에게 '자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지식, 무엇보다도,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개념에 의해 대체되었다. 개인의 판단은 경제적-재무적 계산의 객관성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경영자로 하여금 투자 기회들의 등급을 매기고, 대안들을 비교하여, 특정 옵션이 회사에 가져오는 순현재가치를 고려하게 한다. 개별 계획들의 투자가치에 대한 경영자의 광범위한 객관적 계산 실패가 경제이론, 금융수학, 경제예측, 추정과 통제 테크닉에 의해 상쇄되었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팀들이 요구되었다. 일단 설치만 되면 '자본 생산성을 안내하는 등대'는 경영자로 하여금 공장과 기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체육관, 컨트리클럽, 호화로운 사무 빌딩과 같은 위세 투자와 복지를 계산하고 평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등대로부터의 이탈이 반드시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최고 경영자는 그런 [투자 및 복지] 계획들의 **비용**을 기록, 계산, 평가하고, 그런 계획들을 과거 수익에 기초해서 이해하고, 따라서 그런 계획들을 다른 자본지출과 동일한 지평에 둘 수 없게 된다.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를 개별 투자 결정으로 번역하는 방식인 DCF 분석 테크닉은 투자 결정의 본질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DCF 테크닉은 단지 민간 부문에만 장려되지 않았다. DCF 테크닉은 국유 산업의 경제적, 재무적 책임을 보다 정확히 명기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었다. [국유산업의] 연간 투자가 전체 제조업에 상당하고 국민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국유 부문의 효율성 추구는 전체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건 아니다.²⁶⁾ 1967년 [정부] 백서는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헌신, 그런 목표의 달성을

25) H.C. 440MII (1967) *Select Committee on Nationalised Industries; Sub-Committee A, Minutes of Evidence, Memorandum submitted by HM Treasury, including Appendix A*; NEDG (1965) *Investment Appraisal*, London, HMSO.

26) HC 44p/VIII 1967.

위한 투자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투자의 균형을 확보하는데 DCF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명하고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²⁷⁾

물론 국유 산업의 맥락에서 DCF 테크닉의 규제적 역할은 분명했다. 일상적인 정부 통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효율적' 운영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국유산업에서 1967년 이전에 행해졌던 개별 투자 결정은 개괄적인 조항들만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다.²⁸⁾ 그런 맥락에서 DCF 테크닉은 가장 적합한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후부터 투자 결정은 DCF 테크닉의 적용을 통해 행해졌고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관리되었다. 그로 인해 경영자가 개별 결정을 내려 질 때 기준이 되는 계산법이 도입되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계산법으로부터의 예외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가능한 예외도 DCF 테크닉의 적용을 통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투자 검토 과정은 전반적으로 산업, 책임부서, 중앙경제부서 간 협력 절차였다.

따라서 DCF 테크닉은 국유 산업의 개별 투자 결정이 정부와의 지근거리를 유지한다는 관념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계산적 규범이 규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이런 방식에서 '자본 생산성을 안내하는 등대'로부터의 이탈은 분명한 예외로 생각되었고, 개별 투자 결정의 장소는 중심지로 이동했다. 따라서 경제생활의 이런 핵심 영역에서 '성장'의 언어는 특유한 계산 체제에 의해 도구화되었다.

그 결과 성장의 언어는 1960년대 중반 정치적 합리성의 핵심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개별 기업 수준과 공공 부분에서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심지어 산업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정부마저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국유 산업의 일상적 투자 결정들을 감내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DCF 분석 테크닉은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DCF 테크닉은 경제생활을 '원격'으로 통치하는 일련의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만약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 정부는 특정 집단에게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특수한 계산 전문지식의 형태로 번역하게 하여 투자결정의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부가] DCF 테크닉을 민간 산업에 장려하고, 또한 국유 산업에 DCF 테크닉의 사용을 강조하고, 또한 신생 경영 대학에서 경영자들에게 DCF 테크닉 교육을 권고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이상理想은 민주주의적 자유, 사회 정의, 생활의 공정한 표준과 일치하게 되었다. 투자를 고려하고 계산하는 방법들을 변형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순투자수익은, 만일 계속 지속된다면, 조화될 수 있다. 성장의 정치적 합리성과 그것의 미래 지향성은 미래를 실제로 계산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기업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계산과정은 기업의 미시적 수준에서 행해졌지만, 이때부터 계산과정이 국가의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루었다. 추구되는 이상이자, 현실화되는 대상이자, 사회를 평가하는 합리성으로서 '성장'은 정치인과 계획입안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무수히 많은 국지적 계산 지점에 의해 성취된다. 정치적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계산 테크놀로지를 도입함으로써 운영될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기업의 심리적 영역 통치

통치는 단순히 활동과 과정의 질서가 아니다. 통치는 주체들을 통해서 작동한다. 미래의 현금흐름할인(즉, DCF테크닉)의 관점에서 투자를 판단하게 된 개별 관리자가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통치 전략의 자원이 된다. 그럴 정도로 통치는 '개인'에 관한 문제이며, 대다수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맹에 개인들을 가입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권위적 규범, 계산 테크놀로지, 평가 형태는 시민들의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능력 안에서 그들의 가치, 결정, 판단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한에서 개인들의 '자동 조타' 메커니즘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 그

27) Cmnd 3437 (1967) *Nationalised Industries: A Review of Economic and Financial Objectives*, White Paper.

28) Cmnd 1337 (1961) *The Financial and Economic Obligations of the Nationalised Industries*, White Paper.

결과 '자유로운' 개인들과 '사적' 공간들은 형식적 자율성을 훼손 받지 않으면서도 '지배'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대부분의 가변적인 프로그램은 주체들의 능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고, 일련의 테크놀로지는 생산자, 소비자, 부모, 시민으로서 주체들의 개인적 능력들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는 주체들을 매우 '사적'으로 여겨지는, 즉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데에만 관련된, 무수한 일상적 과업에 몰두시키는 결정들과 행동들로 조직하고 정형시켰다.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건강, 적응, 수익성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별적 능력이 관리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립 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치적 관심사를 부여 잡았고, 자신들이 문제를 개선하여 이득을 가져올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힘 있는 사회적 권위자들, 특히 사업가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들은 사업가의 '골치 아픈' 문제를 전문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합리적 지식들과 계획된 테크닉들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존재의 새로운 양상들을 문제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발견해낸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권위자들'과 '개인들' 간에 강력한 번역 장치로 활동했는데, 이들은 행위를 강제가 아니라 진리의 힘, 합리성의 힘, 효과성이라는 매력적인 약속을 통해서 조성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경제생활로부터 사례들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업의 내부 영역과 생산적 주체들의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세기에 걸쳐 경제생활의 통치는 개인들이 사회의 생산적 기구들과 맺는 관계들을 형성하고 조절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수반했다.²⁹⁾ 그 과정에서, 생산자로서 개인의 활동은 지식의 대상이자 전문지식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인과 사업가의 경제적 실천들을 개인의 능력과 주체들의 열망으로 번역했던 중계점의 복잡한 망이 형성되었다.

20세기 초 20년 동안 고안되었던 '과학적 관리'의 프로그램들 — 이를 주창한 사람들 따라 테일러리즘으로 불린다 — 은 대개 노동자를 지식의 대상이자 경영을 위한 자산으로 만들려는 모든 '과학적' 시도의 패러다임으로 여겨진다. 테일러리즘과 표준 비용처럼 그에 연관된 테크닉들에서³⁰⁾, 노동자는 짐승으로 묘사되었고 개인의 동기부여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은 생산과정의 요구에서 발생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테일러리즘은 단순히 작업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을 최대화하는 냉혹한 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테일러리즘은 거시 정치적 열망들과 전문가의 권력들 사이에 동맹을 맺게 했던 '효율성'의 언어와 접합된 일련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연적, 기계적, 인적 자원들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케 하는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국가의 부와 국제 경쟁력을 증대하려고 했다. 평가되고, 평정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으로서 노동하는 주체는 개인자의 관점으로부터 통치되는 지식의 대상이자 개입의 목표로 간주되었다.

테일러주의 프로그램들과 그것을 실행하는 테크놀로지들은 생산적 주체를 작업장의 복합적 테크놀로지를 통해 외부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실체로 봤다. 이는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 '메커니즘'이라 불렀던 일련의 실천적이고 지적인 생산 수단들의 배치와 창조를 포함한다. 이런 수단은 표준 도구, 조절 가능한 발판, 시간연구의 방법과 도구, 장부와 기록, 설계자가 작업할 책상, 노동자의 개인적 판단을 대체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실험, 표준과 업으로 노동의 세분화, 문서로 작성된 지시와 지시 카드, 보너스와 할증 임금체계, 노동자의 과학적 선발 등을 비롯한 많은 것을 포함한다.³¹⁾ 이런 목록이 이질적일지 모르지만, 테브노가 지적한 것처럼, 테일러에게 그런 요소들은 단일한 메커니즘의 일부였다. 여기에서 테일러는 우리가 통치 테크놀로지라 명명한 것의 완벽한 사례를 제공하는데, 이는

29) Miller, P. (1986b) 'Psychotherapy of Work and Unemployment' in P. Miller and N. Rose (eds), *The Power of Psychiatry*, Cambridge: Polity Press; Rose, 1990.

30) Miller, P. and O'Leary, T. (1987) 'Accounting and the Construction of the Governable Person',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35-65.

31) Thevenot, L. (1984) Rules and implements: investment in forms, *Social Science Information*, 23 (1): 1-45.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예측 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고 표준적이고 재생가능한 형태의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산출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테일러주의는 전문지식을 통해 생산적 주체를 통치하는 모든 기술적 개입의 패러다임을 제공한 건 아니다. 전간기 동안 영국에서, 고용관계를 프로그래밍하는 새로운 어휘와 테크놀로지가 탄생했는데, 이는 특히나 찰스 마이어스와 국립산업심리연구소의 활동과 관련되었다.³²⁾ 생산적 주체를 구성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 자체를 가능하게 했던 지적 조건이 존재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본능과 적응의 '새로운 심리학'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정신위생운동이 출현했다. 정신위생운동은 수많은 사회적 질병의 뿌리가 효율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정신 영역의 사소하고 처리되지 않은 문제들에 있다고 봤다.³³⁾ 이런 새로운 지식 테크놀로지가 산업에 적용되었을 때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졌다. 첫째, 그것은 개인들이 노동에서 자신의 자아와 맺는 관계를 설명했다. 노동자는 생산적 노동에 연속적이고 생산적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 생활을 향유한다고 간주되었다. 노동자는 정신, 공포, 불안 가진 개인으로 파악되었다. 다양한 심리 전문가들은 단조로움, 피로, 주의력뿐만 아니라 동기부여와 사기에 관심을 가졌다. 노동하는 개인에 대한 심리학을 정립하는 이러한 방식은 생산의 요구에 노동자의 동기, 공포, 욕구를 조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과 연결되었다. 둘째, 이런 새로운 어휘는 개인들이 다른 노동자들, 즉 동료, 상사, 부하와 맺는 관계들에 관심을 가졌다. 기업의 비공식적 생활이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전문지식에 의해 관리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했다. 셋째, 이런 언어는 생산적 기계로서 노동자와 가족 및 가정생활을 지닌 인간으로서 노동자 간에 상호의존성을 확립했다. 이후로 노동자의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에 고유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은 노동자의 작업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때부터, 노동자의 정신위생은 전문가, 관리자, 사장, 정치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³⁴⁾

이렇게 생산과정의 개인 차원을 새롭게 주목한 것은 생산성 증대에 관한 단순한 관심보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당연히 생산성 증대는 자본주의 기업의 역사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목표였다. 또한 분명히 정신 위생의 새로운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이 그런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을 사장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간기 동안에 생산 기구와 노동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에 기여했다. 그런 방식들은 새로운 지식 영역을 개척하여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실천이 출현했으며, 이는 향후 개인을 기업에, 마찬가지로 개인을 사회에 연결하는 유대가 단지 경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임금 관계와 사장의 권력은 개인적 유대를 통해 보완되어야 했다. 이런 유대가 개인들을 노동 영역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삶과 그들의 동료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체 사회와 연결해 준다.³⁵⁾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가 노동자의 만족 및 건강과 기업의 수익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해준다고 인식되었다. 거시 정치적 프로그램, 기업가들의 이윤에 대한 탐색, 피고용인들의 개인적 삶의 질은 심리학 전문지식을 통해서 결합될 수 있었다. 심리학 전문지식은 이런 당사자들 중에 어느 쪽이 아니라 진리와 합리성의 가치와만 동맹을 맺었다.

생산적 주체에 관한 이런 일련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노동자의 주체성을 개인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판단한다. 여전히 노동자는 합리적 지식과 중립적 전문지식에 의해 파악되어 현명하고 통찰 있는 관리자에 의해 외부에서 관리 받아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에 대한 관념은 보다 큰 변형을 겪었는데, 이는 작업장 내부의 **긍정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공식화했다. 여전히 '방어적'인 개인들이 식별되었지만, 훨씬 중요한 영역이 개척되었다. 이런 영역은 모든 개인의 정신 건강을 그들의 노동과 관련해서 최적화하려 했다. 전시 인력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산업주의자들, 심리학자들, 관리자, 정

32) Myers, C. S. (1927) *Industrial Psychology in Great Britain*, London: Cape를 참조하라.

33) Rose, 1985.

34) Miller, P. and Rose, N. (1988) 'The Tavistock Programme: The Government of Subjectivity and Social Life', *Sociology*, 22 (2): 171-92.

35) Miller, 1986b.

치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다. 이는 작업장과 그 밖의 장소에서 개선된 인간관계 관리가 만족을 최대화 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최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동맹은 시민을 존중하므로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부응한다고 여겨 졌다.³⁶⁾ 사회의 건강을 촉진할 책임은 단순히 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경영자, 정치인, 교사 및 기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회의 사회적 실천가들에게 속한다. 이런 새로운 관심사는 집단 내 인간 관계에 관한 전문적 관리의 관점에서 분명히 표현된다. 집단 관계라는 새로운 어휘를 통해, 기업내 노동자의 상호주관적 생활은 그에 기초에서 통치가 작동되는 살아있는 필수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개인을 심리학적으로 생산과정에 결합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동자를 권리와 책임을 지닌 민주주의적인 시민으로 사회 질서에 통합한다.

정부 보고서, 경영자 조직, 산업 심리학자에 의해 촉진된 기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기업의 [인간 및 심리 관계적 생활을 도구화하려 했다.³⁷⁾ 피고용인의 이해관계를 기업에서 파악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해 관계를 피고용인에게 인식시킨다는 방식에 따라, 피고용인의 주관적 능력과 상호주관적 역학이 조성되고 활용될 수 있었다. 리더십이 경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상층 피고용인들의 리더십 능력뿐만 아니라 감독직 같은 핵심 중간층의 리더십 능력도 포함되었다. 이런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리더십을 신중한 선발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특정 목표를 위해 결합된 특정 집단 안에서 특정 역할을 맡는 개인에 대한 효과로 재개념화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리더십은 작업장의 관계적 테크놀로지, 즉 사람들과 과업들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에 의해 생산되고 촉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 심리학자들은 산업재해를 개인의 자질로 인한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해경향성'은 집단의 한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재해는 개인적 사건만큼이나 사회적 사건이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종의 작업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이라는 어휘가 생산 활동의 개인 차원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은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노동, 작업과 환경 상의 자기 위치에 대한 자신의 통제감,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개인적 문제에 대해 사장이 보여주는 관심과 이해에 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태도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여기에서 요점은 단순히 관리 과업을 주장하기 위한 새로운 어휘의 출현이 아니다. 피고용인의 사적 소망을 장애 물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의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강조점이 작업장 인간관계의 계산된 관리를 통해 노동자의 내부 심리적 영역을 규제하는데 주어졌다. 이는 자아^{selfhood}를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지루한 강제 의 영역인 노동과, 개인의 욕구들을 충족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영역으로서 가정, 가족, 여기라는 수세기 동안의 넓은 대립을 극복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경영자는 노동자의 자기 규제 능력, 또한 노동자의 개인적 목표를 향한, 즉 사적인 목적을 위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고용주가 이윤을 추구할 때 이런 개인적 욕구를 고려할 가치가 있었으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전문지식이 노동자의 윤리를 심리학적 개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맡았다.

새로운 일련의 과업이 출현했는데, 이는 지식에 의해 밝혀져고 공장에서 관리되었다. 공장의 상호주관적 영역을 계산 가능한 실체로 간주하려면 새로운 이론 이상의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영역을 차트로 만들고 평가하는 새로운 장치들이 발명되었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작업장에 참여하여, 불만족, 갈등과 문제가 되는 노동자, 십장, 감독자 등의 사고, 태도,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비구조화 인터뷰 같은 도구들을 사용했다.³⁸⁾ 상호주관성을 표와 차트로 전환하기 위해 측정 및 척도화 테크닉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었고, 표와 차트는 공장의 문제들을 계산하고 진단하며, 여러 가지 시도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경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인터뷰 테크놀로지는 하나의 규제 메커니즘

36) Taylor, G. R. (1950) *Are Workers Human*, London: Falcon Press; Brown, J.A.C. (1954) *Social Psychology of Industry*, Harmondsworth: Penguin.

37) Miller and Rose, 1988.

38) Rose, N. (1989a) 'Social psychology as a science of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Cheiron-Europe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Goteborg, August 1989; Rose, N. (1990)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London: Routledge.

인데, 왜냐하면 질문하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주관적 상태가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불만이 없어졌고, 불안이 감소했고, 만족은 증가했고, 연대와 헌신이 높아졌다.

1950년대와 1960대, 산업분야의 사회심리학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과 연합했던 경영관리 이론가들은 그들의 프로그램 열망을 공장 담벼락 안에 한정하지 않았다. 집단이라는 새로운 어휘와 그에 수반되는 테크놀로지들은 일련의 중계점을 확립했는데, 중계점은 기업의 내부 생활에 대한 개입과 국가의 경제적 복리에 관한 계산 사이에 연결을 가능하게 했다. 정치의 고유한 영역과 국가에 의한 적합한 개입 양식이라는 관념이 변형될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회심리학적 노선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거의 완벽한 일신을 주장했다.³⁹⁾ 이들 프로그램이 영국에서는 거의 몽상에 머무르고 있지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논점은 그런 프로그램들의 실행 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관계들이다. 전문지식은 경제적 생산성, 정치적 민주주의, 개인적 만족이라는 가치들을 단일한 이론적-정치적 매트릭스에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발견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화한다.

자율적 주체의 통치

20세기 전반에 형성된 형태의 정치적 합리성은 시민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으며, 사회적 존재의 권력과 의무는 사회적 책임과 집합적 연대라는 언어에 접합되었다. 개인은 사회적 욕구를 지닌 시민의 형태, 즉 개인과 사회가 서로서로 요구와 의무를 지는 계약에 의해 사회에 통합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명되었는데, 이는 사회 안전, 아동 복지, 신체 및 정신 위생, 보편 교육을 비롯해, 심지어 이와 동일한 이유로 운영되었던, 대중오락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사회 보험부터 아동상담소까지 수많은 테크놀로지들이 발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여 년 동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테크놀로지를 중앙에서 지휘하는 집권적 체계에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분명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정치적 합리성의 외견상 결정적인 전위는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다. 신자유주의의 갱신된 어휘에서 뿐만 아니라 당대에 대한 급진적 비판자들을 비롯해서 정치 영역의 중도파와 좌파로부터 제기된 수많은 정치 프로그램에서, 자유와 자율의 언어는 정치권력의 정당한 수단과 목적을 둘러싼 논쟁을 좌우하고 있다.

더 이상 시민권이 연대, 만족, 복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고 안전에 대한 감각은 조직생활과 사회생활의 유대들을 통해 생기지 않는다. 시민권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이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데, 개인의 시민권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로운 행사를 통해 증명된다.⁴⁰⁾ 이런 선택의 확장 범위라는 관점에서 통치 프로그램들이 평가된다. 여러 정치스펙트럼,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압력집단들과 시민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한 통치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자아-실현이라는 언어의 뒷받침을 받는다.

이런 새로운 정치적 언어가 덧없는 현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로, 혹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자아-실현이라는 언어는 자본주의에 전형적인 원자적 개인주의의 단순 반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논문에서 묘사한 관점은 상이한 접근을 제시한다. 그런 접근은 이러한 새로운 언어가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문제 영역들을 조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합하고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세한 윤리적 체계와 정치적 심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개인, 집단, 부문을 관리하는 일련의 테크놀로지로 번역하고자 했던 방법을 강조한다.⁴¹⁾ 이는 영국, 유

39) 예를 들어, Taylor, 1950; Trist, E. L., Higgins, G. W., Murray, H. and Pollock, A. B. (1963) *Organizational Choice*, London: Tavistock; Brown, W. and Jaques, E. (1965) *Glacier Project Papers*,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Emery, F. and Thorsrud, E. (1969) *Form and Content in Industrial Democracy*, London: Tavistock.

40) Meyer, 1986을 참조하라.

립, 아메리카 신우익의 주장에서 핵심을 이루었던 특정한 관념, 즉 ‘기업_{enterprise}’을 조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기업의 언어가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한편으로] 정치적 사유의 가장 일반적인 지평과, [다른 한편으로] 국민경제, 기업 내부 영역, 학교에서 병원까지 기타 모든 조직들을 관리하는 일련의 특정한 프로그램 사이에 기업의 언어가 번역 가능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기업의 언어는 개별 프로그램이 개인의 자기 규제 능력을 우선시하게 만들었다.⁴²⁾ 거시경제 수준에서, 경제는 확신과 열정을 지니고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적인 경제 단위들 간에 교환의 형태로 구조화되고, 또한 경제가 대부분의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그런 재화를 개인과 전체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분배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이 경제생활 ‘통치’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폐기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런 도덕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개조하는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수많은 새로운 규제 테크놀로지를 창출했다.⁴³⁾

이런 합리성 안에서, 국민의 경제적 건강과 개인의 ‘사적’ 선택 간에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었다. 이제 시민은 소비자로서 자신의 활동에 커다란 경제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서양 사회에서 예산 규율과 높은 수준의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던 경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의 지속적인 팽창이 요구되었다. 경제는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욕구를 증식하고 차별화하고,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구매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면 성공한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언어와 소비자 반응이, 자동차 산업의 조직, 의료 서비스의 제공, 상하수 시설의 조직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 프로그램의 근거를 제공하는, 정치적 주장을 구조화한다 하더라도, 소비 자체는 통치의 심성이 아니라 이윤의 심성에 속하는 상이한 일련의 실천과 테크닉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합리성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특정 존재 조건의 범위를 알게 해준다. 이럴 경우에 자율의 합리성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대중 텔레비전 및 엔터테인먼트 같이 개인의 행실, 선택, 욕망을 형성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담론과 실천이 출현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제품 차별화, 표적화, 마케팅의 전문 테크닉을 통해 상품 영역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 극대화의 목표가 국가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집행 권력은 광고, 금리, 신용 등에 대한 정책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비에 개입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기업의 언어가 일종의 사유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소비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가로 간주되며 ‘라이프스타일’의 능숙한 배열을 통해 ‘삶의 질’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들은 상품 영역을 통해 결속한다. 이런 정치-윤리적 환경에서, 시장조사 전문지식, 또 판매촉진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지식은 장관들의 열망, 사업가의 야망, 소비자의 희망에 상호 번역가능성을 제공하는 중계점을 제공한다. 디자인, 마케팅, 이미지 제작은 상품을 욕망으로 또한 그 반대로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 상품에 ‘개인적’ 의미를 불어넣는데, 조명은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을 비추어 그들을 있는 그대로 혹은 그들이 되길 원하는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제품 혁신과 소비자 수요가 서로 관계 맺는 의미의 망, 또한 서로를 이끄는 효율의 판타지와 쾌락의 몽상을 통해서 연결된다. 행위자, 계산, 테크닉, 이미지, 상품의 이런 느슨한 배열을 통해서, 소비자 선택은 경제성장의 동맹이 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자신의 존재 형태를 개인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취하는 선택을 통해서, 경제생활은 통치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실현이라는 합리성들은 기업의 내부 영역을 규제하는 프로그램들과 테크놀로지들의 변형과 연관된다.⁴⁴⁾ 다시 한 번, 전문지식이 핵심적인 번역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지식은 일반적인 정치-윤리적 원칙,

41) Rose, N. (1989b) ‘Governing the enterprising self’,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the Values of the Enterprise Culture, University of Lancaster, September 1989.

42) Gordon, 1987을 참조하라.

43) Thompson, G.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Right*, Rose, N. and Miller, P. (1989) ‘Rethinking the state: governing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life’, Working Paper (available from the authors on request).

44) 예를 들어, Peters, T. J. and Waterman, R. H. (1982) *In Search of Excellence*, New York: Harper & Row을 보라. 또한 Rose, 1990를 참조하라.

산업의 목표, 개인들의 자기 규제 활동에 대한 정렬을 약속한다. 기업의 어휘는 융통성 있는 사유 도구를 제공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안전, 연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회적 창조물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의 관점에서 삶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다잡고 관리하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라는 어휘는 외부의 시장 영역에서 사장들이 사업 전략들을 계산, 운용하는 방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문가들에 의해 사업 성공을 보장받는 일련의 새로운 테크닉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기업의 영역은 말단 노동자로부터 최고층 관리자까지 자아-실현 충동의 능동적 개입을 통해, 즉 개인의 욕망을 기업의 목적에 정렬함으로써, 생산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보증되며, 혁신이 촉진되는 곳으로 재개념화된다. 조직은 만족을 극대화하는 집단 관계를 관리하거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경영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한 개인들의 심리적 노력을 고무하고 기업의 우위와 성공에 대한 탐색에 개인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피고용인들을 최대로 활용한다. 조직 심리 컨설턴트들이 기업의 문화적 영역을 도표화하는 테크닉을 제공하는데, 이는 기업의 성공이 기업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열망을 자본화하는데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또한 이런 전문가들은 일련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고안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 즉 회사 내부에 가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관리 구조를 재조직함으로써 의존성을 감축하고, 소규모 집단작업을 통해 내부 경쟁을 촉진하고, 스텝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의 새로운 형태에 따라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자극하는 테크닉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생산적 개인의 '자율적' 주체성이 핵심적인 경제적 자원이 되었으며,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율성을 통제되어야 하고 훈육되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의 동맹자로 만들 것을 주장한다. 우리가 앞서 기술했던 일종의 느슨하고 간접적인 메커니즘들, 다시 말해 합리성들, 프로그램들, 테크놀로지들, 자기 규제 테크닉들 사이에서 언어의 번역 능력과 전문지식의 특수한 설득적 역할을 통해, 개인의 자기 규제 능력은 경제적 목표와 정렬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노동자의 열망을 단순히 도구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영자의 자아에도 영향을 미치려한다.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아-표현^{self-presentation}의 양식들과 개인의 자아 윤리 사이에 어떠한 대립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것은 훌륭한 자아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훈련 과정과 세미나가 이런 용어들로 운영된다.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의 가치와 자아-표현, 자아-지향^{self-direction}, 자아-관리^{self-management}의 기술은 개인에게 매혹적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또다시, 전문지식은 중계점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경영자들에게 자신을 피고용인이자 개인으로 수련시켜주는 자아-실현의 기술을 가르친다. 경제적 성공, 경력의 확충, 개인적 발전은 자율적 주체성에 대한 이런 새로운 전문지식 속에서 교차한다.

분명히 이런 노선에 따라 작성된 엄청난 텍스트들에서 묘사되는 이미지들도 경영 실천들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분명히 기업에 대한 프로그래머들의 이런 새로운 시대의 약속은 머지않아 실패할 것이다. 증대된 생산성, 향상된 유연성, 확장된 경쟁력은 여전히 모호한 목표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테올로지 이상의 것을 여기서 관찰할 수 있다. 앞서 묘사했던 것처럼, 여기서 논점은, 개념적 수준과 실천적 수준 모두에서, 국민의 생산적 삶을 통치하려는 정치적 관심사, 자기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 소유자의 관심사, 그리고 주체를 통치하는 테크닉들 간에 연결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기업 전문가들은 이들 상이한 관심사를 작동 중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언어와 테크닉은 정치적 권위자들과 [기업의] 조직적 삶 간에 필요한 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건강, 조직 효과성 증대, 진보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들 간에 동맹관계를 건설하는 번역가 능력을 산출한다.

노동자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회사의 경쟁적 발전의 조화는 노동의 테크놀로지와 주체성의 테크놀로지 간의 정렬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가적 자아에 따르면, 자율성, 창의성, 책임감을 추구하므로 노동은 더 이상 자신의 잠재력 실현하는 개인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약하지 않는다. 노동은 자아-실현에 이르는 필수적 요소다.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장벽도 없다. 이제 노동의 통치는 모든 사람의 심리적인 수행추구를 거치

고 있다.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현대의 사회적 권위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활동을 형성하고 규제하려 했던 복잡하고 이질적인 방식들을 분석하는데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이 유용하게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정치적 합리성의 분석을 제안했는데, 언어, 특히 사회과학 언어의 역할에 특별히 주목했다. 어휘와 이론은 그것들이 생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입, 표기, 계산 테크닉이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능숙하게 수용하는 지식 테크놀로지로서, 즉 존재를 사유 가능하게 하고 실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서 중요하다.

우리는 특히 통치의 프로그램적 성격에 주목했으며, 이런 통치의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분석이 성공과 실패의 판단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전문 지식과, 중립성과 효율성을 주장하는 공인 받은 숙련된 인력으로서, 전문가들이 동원했던 방식(반대로) 동원되었던 방식을 주목했다. 우리는 근대 '통치성' 분석 자체가 '국가'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행위자들^{agencies}과 세력들의 상이한 배치의 활동을 규제하는 온갖 메커니즘에 대한 제한된 개념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통치성' 분석이 프로그래머의 열망을 실행하려고 했던 혹은 실행을 주장했던 '테크놀로지'에 관한 조사를 경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와 같은 선진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테크놀로지는 개인들을 사회-정치적 목표에 연결할 목적으로 개인들의 자기 규제 성향에 개입하고 그것을 도구화하려고 한다.

경제적, 사회적 행위자로서 시민들에게 수많은 테크닉을 제공하는 일련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고안되었다. 그런 테크닉들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반기지 않게 된 것을 회피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원한다고 믿게 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도구화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년 동안 개인들의 자아-통치^{self-government}를 강조하고, '국가'가 개인들의 삶과 결정에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합리성들의 중요성 증가는, 정치적 합리성 수준에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확립했던 정치적 규칙의 새로운 가능성들 가운데 한 가지 접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이상 정치적 권위자들이 개인들의 모든 존재 영역들, 즉 가장 내밀한 곳에서부터 가장 공적인 곳까지 그들을 지도하는 식으로 통치하려 하지 않는다. 개인들은 노동자로서, 관리자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가 경제성장, 성공적인 기업, 개인 최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들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동원될 수 있다. 통치 프로그래머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통치하는 테크닉을 습득시키기 위해 복잡한 테크놀로지의 망, 즉 경영, 마케팅, 광고,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의 교육용 강연 등을 활용하고 그에 의존한다. 근대 정치권력은 주체성의 지배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⁴⁵⁾ 그와 반대로, 정치권력은 자기-통치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테크놀로지들의 망에 의존하게 되었다.

45) Miller, P. (1987) *Domination and Pow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